光州日報

제17465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6년 6월 5일 (음력 5월 10일) 월요일

"한-미 FTA 타결땐 농업 40% 고사"

정부 농·수산업 회생대책 있나

수산업은 피해규모조차 추산 못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되면 농·수산업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정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예측하거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수산을 주산업으로 하고 있는 전남지역은 한미FTA가 타결되면 직격탄을 맞게돼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농수산 전문가들과 농어민단체는 ▲주식인 쌀의 협상대상 제외 ▲관세철폐 예외나 점진적 감축 등 품목별 대처 등 협상과정상의 대응 뿐 아니라, 농수산업 구조 개선, 소득보상 대체 작목 선정 등 국내적 대책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3면〉

한미 FTA타결로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농업의 40%가 고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수산분야의 경우 제조업이나 농업부문에 비해 정확한 피해 분석이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어촌·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농업보다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5일 한미 FTA 1차 본협상을 앞둔 가운데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와 농민단체 등은 쌀을 포함해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농업소득 감소액은 8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두봉 고려대 교수(식품자원경제학)는 "USITC 등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농업소득의 경우 지난해 농업부문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달하는 7조7천억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쌀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등 전제조건이 종전 분석과는 다르지만 국내에서 제시된 피해추정액 가운데 최대치로, 지난해 농업부문의 국내총생산 추정액이 20조원인 점에 비춰 우리 농업의 40%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수산업분야의 피해도 지난해 우리나라 수산소득의 10% 웃도는 5천77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농업과는 달리 수산업 분야는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제대로 추산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광남 한국수산회 연구위원은 최근 분석을 통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원양협회 두 기관이 한미FTA로 인한 수산업 피해액을 분석한 결과 피해규모가 7배나 차이가 난다"면서 "분석기준이 다르겠지만 어민들의 설득을 위해서라도 수산업 영향에 대해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하는 피해규모가 산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민어와 명태의 수입으로 원양어업에서 374억~524억원, 국내산 가격하락 및 수입산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연근해어업에서 92억~214억원 등 모두 511억~849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농업 관련단체는 "한미FTA 저지를 위해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태기자 jtlee@

한-미 FTA 오늘 1차 본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이 5일부터 닷새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협상에는 우리측에선 김종훈 수석대표를 포함해 23개 부처 등에서 선발된 협상단 146명이 참석하며, 미국측에선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 등이 나선다.

양국은 협상에서 지난달 19일 교환한 협정문 초안을 토대로 입장 조율이 가능한 내용은 '단일 문안'으로 정리하고, 입장 차이가 큰 분야는 양측 의견을 함께 적은 '통합 협정문'을 작성, 2차 본협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할 예정이다.

양국이 사전교환한 협정문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세제, 입법, 공공분야에까지 '최고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1차 본협상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여기는 인도네시아" 광주기독병원 지진 구호활동

서민정 기자 '욕야카르타' 1信

광주일보사와 광주기독병원 의료진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구호팀 12명이 지난달 31일 광주를 출발, 1일 현지에 도착한 뒤 의료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Yogjakarta)에서 서민정 기자가 제1신을 보내왔다.

도착하자마자 진료캠프 꾸려

지난 3일 오전 10시(이하 현지시각),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Yogjakarta)주(州) 클라튼 지역 '테롱마을'. 광주기독병원 의료구호 활동팀은 무너진 집 더미 위에 어렵게 캠프를 차렸다.

테롱 마을은 1천500m의 고산지대나 30도를 훨씬 웃도는 열대기후 탓에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곳이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의료진들은 몰려드는 환자들로 숨돌릴 겨를이 없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지진 당시 입었던 상처를 일주일 동안 그대로 방치했는데, 고온다습한 기후가 곪은 상처를 더욱 빨리 썩게 하기 때문이다.

광주기독병원 의료진들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족 자카르타의 현지 표기) 테롱마을에 진료캠프를 설치한 후 한자리에 모였다. /욕야카르타=서민정기자

마을에는 병원을 찾으면 '돈이 많이 든다'는 뜬소문이 나돌았다. 일부 주민은 병원에 갈 교통비를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부러진 뼈와 곪은 상처를 방치하고 있었다.

오후 4시께 텐트 안 의료진들이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다. 지진 당시 코가 완전히 깨지고, 살점이 모두 찢겨나간 이멤(38)씨가 후송되어 왔다. 방치된 상처의 살이 양옆으로 분리돼 일부는 곪기 시작하고 있는 이멤씨의 상처를 본 임준석 과장 등 의료진은 봉합 수술을 시작했다. 〈2면으로 계속〉

viola@kwangju.co.kr

알림

제13회 무등기 전국 고교야구

전국 시·도대표 26개팀 출전

6월 12일~19일까지 무등경기장 야구장

● 주 최 : 광주일보사 · 대한야구협회
● 주 관 : 광주광역시야구협회

알림

성공투자전략 무료 강좌

7일 오후 3시 김대중센터

광주일보사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미래 자산설계 및 성공 투자전략'이란 주제로 무료 공개강좌를 개최합니다.

제1부 '이제는 투자시대, 내게 맞는 자산설계', 제2부 '급변하는 투자환경, 성공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 강창희 소장과 한국밸류자산운용 이채원 전무가 강사로 나섭니다.

관심있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6월 7일(수) 오후 3~6시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 문의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사무국 (02-2003-9235~6,www.kcie.or.kr)

光州日報社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